"미지의 맛 찾아 수제맥주 생산… 세계에 K맥주 알릴 것"

인터뷰 | 더쎄를라잇브루잉 전 동 근 대표

깡맥주 등 컬래버제품 잇단 흥행
"의사결정권자가 맥주 잘알아 맛 구현에 2개월 이면 충분"

충남 보령에 3공장 내년 완공
다양한 용량, 병맥주 라인 확대
2024년 월 616만L 생산 목표

전동근 더 쎄를라잇브루잉 대표가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맥주 사업을 넘어 우주 산업까지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청년 대표가 있다. 더쎄를라잇브루잉 전동근 대표다. 수제 맥주 회사이지만, 우주에 대한 열망을 담아 회사명도 인공위성을 의미하는 '새틀라이트(satellite)'에서 따왔다.

"맥주는 원재료 배합에 따라 수만가지의 맛과 향을 낼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 우주공간을 누비는 인공위성처럼, '더쎄를라잇브루잉'도 미지의 맛을 탐험한다는 생각으로 수제맥주를 생산하고 있죠."

전동근 대표가 2017년 설립한 수제맥주 스타트업 더쎄를라잇브루잉은 세계 각지의 파트너사와 공급 총판 계약을 맺고 원재료를 수입해 직접 수제맥주 양조장과 펍(Pub)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깡맥주, 쥬시후레쉬맥주, 스피아민트맥주 등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중이다. 또한 고길동에일, 로켓필스, 마시라거 등 자사 제품을 통해 제품력도 인정받았다.

전 대표는 더쎄를라잇브루잉의 경쟁력은 빠른 생산이라고 입을 뗐다.

그는 "다른 주류 회사들은 컬래버 제품 개발에 오래 걸리지만, 우리는 상상 속 제품을 실제 맛으로 구현하기까지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인 제가 직접 맥주를 만들 수 있고, 저 외에도 내부에 독일 출신 브루 마스터도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권자들이 맥주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빠른 출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설비 시설과 시스템도 체계적이다. 더쎄를라잇브루잉은 당일 제조 및 패키징한 신선한 수제 맥주를 콜드체인(Cold Chain, 냉장유통)으로 바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300만L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충남 보령시에 3공장을 설립중이고, 내년 완공 예정이다. 전 대표는 3공장이 완공되면 1공장과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완공 후에는 다양한 용량의 맥주와 병맥주 라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3년과 2024년 단계적으로 증설해 월 616만L, 연간 7400만L 생산을 목표로 한다.

전 대표는 "보령시의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더쎄를라잇브루잉의 강점은 컬래버(협업)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쥬시후레쉬'와 '스피아민트 맥주'를 예로 들면, 패키지 디자인만 컬래버가 아니라 실제 껌 향을 느낄 수 있다. 지식재산(IP) 특성에 따라 특색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사 제품인 '로켓필스'는 로켓의 발사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서 탄산을 20~30% 강화해 청량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1993년생인 전 대표가 사업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계기는 고교 재학 중 청소년 창업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부터다. 미국 캘러머주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맥주에 눈을 떴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산미있는 맥주를 접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마셨던 맥주와는 다른 개념의 맛이더라고요. '맥주가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 맥주 사업에 뛰어들게 됐죠."

전 대표는 미국 맥주 양조장에 찾아가 생산과정과 노하우들을 배웠다. 1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회사를 설립했고, 벌써 6년차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것 같고, 안정화 됐으니 이제는 내실을 좀 더 다지면서 회사 운영력을 키워가야죠. 맥주의 다양한 맛을 널리 알리고 싶고, 세계 속 K수제맥주로 이름을 떨치는 게 목표입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셀트리온, 유방암 이중항체 치료제 개발 나서

美 에이비프로와 공동개발 계약
개발땐 허쥬마 이어 새 약물 확보

셀트리온은 20일 미국 바이오테크 '에이비프로'와 HER2 양성 유방암 타깃의 이중항체 치료제 'ABP102'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셀트리온은 ABP102의 글로벌 공동 개발 및 판매 권리를 확보했다. 개발 마일스톤은 총 1000만 달러(약 139억원)이며, 상업화 혹은 제3자 라이선스 아웃 시 발생하는 이익금은 단계에 따라 25~50%를 에이비프로가 수령하는 조건이다. 상업화 시 매출 달성에 따른 마일스톤은 최대 17억5000만 달러(약 2조4300억원)까지로 정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효능실험, 공정개발, 전임상 동물실험, 임상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게 되며, 에이비프로는 물질 개발 및 후보물질 선정, 세포효능실험 등을 맡게 된다. 이미 양사는 HER2 양성 고형암 표적 이중항체 치료 후보물질로 'ABP102'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이중항체는 2개의 표적 세포에 동시 결합 가능한 것이 큰 특징으로 단일클론항체 대비 표적 세포에 대한 특이성 및 효능 증진 등의 이점이 있으며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앞다퉈 개발에 나서고 있다.

ABP102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셀트리온은 HER2 양성 유방암 및 위암에서 자체 개발해 한 허쥬마에 이어 새로운 약물을 확보하게 돼, 기존 항체치료제 중심의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에이비프로와 이중항체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과 함께 추가로 지분 투자도 단행한다. 지분 투자는 단순 후보물질 개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후보물질의 상업화와 다양한 프로젝트 협업까지 고려해 결정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성과 공유 지난 20일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왼쪽 4번째부터)과, 유미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아내, 래리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안재현 사장이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만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 개발 및 생산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바백스社를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기업, 기관들과 연구 및 개발, 생산 협력을 이어왔으며 최근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날 래리호건 주지사는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개발된 연구 시설도 직접 돌아보며 개발 과정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

교촌에프앤비, 40억 투입 주문시스템 구축

KYOCHON

푸드대시에 지분·공동개발 투자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독자적 IT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교촌은 IT 솔루션 스타트업 '푸드대시'에 지분 및 공동개발 투자 방식으로 총 40억원을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푸드대시는 F&B 온·오프라인 통합 IT 솔루션 스타트업으로, 음식점 주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푸드대시 투자를 통해 교촌은 국내 F&B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주문 서비스 경험을 제공, 가맹점주의 편의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교촌은 차세대 주문앱 서비스를 위한 공동개발로만 10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주문앱은 외부 플랫폼에 의한 가맹점 부담을 낮춰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점주들에게 고객 확보를 위한 LSM(지역점포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촌은 푸드대시와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F&B 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IT 솔루션 개발을 지속한다. 이를 통해 교촌 뿐만 아니라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 기업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진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상생 투자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엑세스바이오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엑세스바이오는 민감도를 유전자증폭(PCR) 수준으로 끌어올린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케어슈퍼브(CareSuperb)' 개발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국 특허청으로의 특허 출원이 완료됐으며, 미 긴급사용승인허가(EUA)를 위한 임상시험은 올 가을에 진행될 예정이다. 엑세스바이오의 자체 성능 테스트 결과, 케어슈퍼브는 기존 제품인 '케어스타트' 대비 32배 민감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뉴욕 유력 의료기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 연방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이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고형암 세포치료제 美 FDA 임상 승인

GC셀 관계사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

GC셀의 미국 관계사인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세포치료제 'AB-201'의 1·2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B-201은 진행성 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 2형(HER2) 과발현 유방암, 위암 등의 고형암을 표적하는 제대혈 유래 CAR-NK 세포치료제다.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CAR-T치료제와 달리 기성품 형태의 자연살해(NK) 세포치료제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티바 CEO인 프레드 아슬란은 "AB-201은 전신 투여되는 최초의 HER2 CAR-NK 후보물질로, 유방암과 위암을 포함한 가장 보편적인 HER2 과발현 고형암을 타깃으로 한다"며 "아티바의 대량 배양 NK 플랫폼 기술은 기성품 형태의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조작이 된 CAR-NK 치료제 모두를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2017년 FDA 최초로 CAR-T치료제가 승인됐지만 이제까지 혈액암 분야에서만 성과를 내고, 전체 암의 95%를 차지하는 고형암 분야에서는 진전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성품 형태의 고형암 타깃 CAR-NK가 미국 임상에 진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GC셀은 지난 2020년 AB-201을 아티바에 기술 이전했다. /이세경 기자